

대학생의 영작문에 나타난 시제와 가정법 사용 오류에 관한 연구

정혜선 · 유제분 · 양병곤
부산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

Jung, Hyesun, & Yu, Jebun, & Yang, Byunggon. (2005). A Study of Errors in the Use of Tense and Subjunctive in College Students' English Composi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errors in college students' English compositions, focusing on the use of tense and subjunctive in order to provide teachers or text developers with basic materials of teaching grammar and writing. Thirty students participated in both the controlled and the free writing sessions in which students translated 32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and described their activitie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n addition, they filled out a questionnaire about their attitude toward English writing and knowledge on tense and subjunctive. The authors counted the number of correct expressions of tense and subjunctive in their writings to determine each subject's score and two native speakers graded each writing by the TWE(TOEFL) standards. Results showed that in the controlled writing the students used 44.07% of tense and subjunctive forms correctly. The majority of the errors were attributed to the intralingual ones. In the free writing, the accuracy rate was higher, 90.92%, which might be related to the students' avoidance of uncertain expressions. The students showed a strong interest in English but lacked confidence in their writing. Further studies on the students' writing would be desirable.

I. 서론

최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영어교육의 주요 흐름을 이루면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읽기나 듣기 혹은 말하기만을 강조하면서 쓰기 교육은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법 능력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Bachman 1991; Canale & Swain 1980)을 통해 논해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생들이 그동안 받아온 문법 중심의 교육은 진정성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못하여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학생들의 작문에서는 대조분석 가설에서 지적하는 모국어의 간접 요소에 의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조분석 가설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전성기였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생겨났는데, 이 시기의 학자들은 외국어 습득을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습관의 형성과정에서 일부 모국어의 규칙은 목표어에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일부는 오히려 오류를 일으키게 되므로,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구조를 비교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어 학습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더욱 효과적인 교재 작성과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Fries 1957; Lado 1957). 그러나 이러한 대조 분석 가설에도 외국어 학습에서 언어 간 전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학습자들의 오류 분석에서 모국어 간섭이라고만 볼 수 없는 현상도 발견되며 이를 대조 분석 가설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목표어의 학습이 곧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목표어에 대한 가설을 의식적으로 검증하는 하나의 언어체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는 목표어를 학습할 때, 자신이 이미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환경과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 보다 창조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되며,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모국어의 체계에도 목표어의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언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Brown, 2000).

Selinker(1972)는 이렇게 구축된 언어 체계가 목표언어와 모국어의 중간지점에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언어(interlanguage)라 부른다. Nemser(1971)는 이것이 목표언어에 계속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근사체계(approximative system)라고 한다. 또한 Corder(1971)는 개인에게 특수하기 때문에 개인적 특유 방언(idiosyncratic dialect)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명칭은 모두 다르지만, 목표어의 학습자가 자신만의 언어 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중간 언어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화와 쓰기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명백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습자에 의해 표현된 말과 글은 학습자가 가진

언어능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목표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발화하고 글로 쓴 것에서 나타난 오류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 언어 체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오류(error)란 실수(mistake)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Corder(1981)는 오류를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와 구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언어능력상의 오류(competence error)와 언어수행상의 오류(performance error)로 구별하여 전자를 ‘오류’라고 하고 후자는 ‘실수’라고 하였다. 이 때 언어능력에서 오는 오류는 체계적이지만 언어수행에서 오는 오류는 비체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효율적인 수업계획 수립과 교재작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오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Burt(1975)는 학습자의 오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의미에 영향을 주는 전면적 오류와 의사전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국부적 오류로 나누었다. Richards(1974)는 모국어 간섭 오류, 언어 내 오류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규칙의 확대적용, 언어 수행상의 오류, 과도적 언어능력에서 오는 오류, 의사소통과 동화 작용의 전략, 교사에 의해 유도된 오류로 구분하였다. Selinker(1972)는 모국어 습관의 전이로 일어나는 언어 전이, 연습 과정에서 오는 연습 전이, 제2언어의 학습전략, 제2언어로서의 의사소통전략, 목표 언어 규칙의 확대적용의 다섯 가지 원인을 들고 있다. Brown(2000)은 주요한 오류 원인으로써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 상황, 의사소통 전략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일어나는 언어 간 전이와 목표어 자체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언어 내적 전이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다. Taylor(1975)는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언어 간 전이 오류가 많으나 중급 이상으로 발전하면서 목표어 내에서의 발전적 오류가 많아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 학습자는 언어 간 전이 오류에 비해 언어 내 전이 오류를 훨씬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곤 1991; 김일선 1988). 상·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실험을 한 경우(조경례 1988) 언어 간 전이에 비해 언어 내 전이가 높다는 것 외에 별다르게 제시한 것이 없었다. 또한 동사의 영역 중에서도 가정법이나 시제 혹은 수동태와 같이 우리말과는 체계가 다른 영역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김일선 1988). 그리고 실험 방법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통제작문을 실시한 경우 비교적 높은 오류를 보였다. 그러나 자유작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오류가 높지 않았다(이효복 1983; 최현욱 1992). 따라서 두 가지 작문

방식 모두를 실시하여 실험을 할 필요가 있으며 영어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이용하여 상·하위 집단을 나눌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통제작문과 자유작문을 통해 나타난 시제와 가정법의 오류를 영어 수준별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하고, 영작문에 대한 원어민의 평가점수와 오류의 비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어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와 영어에서 어려워하는 동사·시제 영역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제·가정법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조사하였다.

1. 대학생들은 반드시 시제와 가정법을 사용하게 되어있는 통제작문에서 주로 어떤 오류를 범하고 그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2. 대학생들은 자유 작문에서 주로 어떤 유형의 시제와 가정법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이들의 오류 점수와 원어민 채점이 보여주는 유창성 점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3. 대학생들의 자신의 영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영작문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대학교 2, 3, 4학년 학생 30명이며 피험자들의 토익(TOEIC) 성적을 토대로 각각 15명씩 500-730점을 하위 집단으로, 760-945점을 상위 집단으로 하였다. 대상은 본 연구자가 앞서 제시한 토익 성적 총점의 기준과 일치하는 대학생들을 파악하여 의뢰하였고 설문지 수거 방법은 E-mail로 받거나 혹은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2. 실험 문항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제작문과 자유작문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시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는 영어전반에 관한 10문항, 작문에 관한 2문항, 동사와 시제에 관한 6문항, 오류수정에 관한 2문

항으로 모두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통제작문

통제작문의 경우, 과거 8문항, 현재 2문항, 미래 2문항, 완료상 8문항(과거완료 2문항, 현재완료 3문항, 미래완료 3문항), 진행 3문항 그리고 가정법에 관한 13문항을 제시하였다. 문항의 수가 다소 제한적이거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오류 빈도가 높은 문항을 고등학교 문법 참고서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작문 교재에서 발췌하였다. 이 때 국문을 영어로 번역하되 필수적인 어구나 동사들은 미리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통제작문에서 나타난 오류는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때 오류의 분류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말의 의미 구조에 대응하는 영어 시제형을 선택할 때 영어시제 체계 내의 관련성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우리말을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언어 간 전이로 분류하였다. 오류는 과거, 현재, 미래, 완료형(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 진행형, 가정법(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채점의 경우, 연구자가 출제된 의도만을 충족시키면 정답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완료를 써야 하는 부분에서 과거시제를 쓴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하고 현재완료로 썼으나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계없는 전치사나 관사의 오답은 무시하고 채점하였다. 그리고 한 문항의 표현이 완료시제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완료진행시제로도 표현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미래완료시제로 쓰이는 문장이 미래완료진행시제로도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래완료시제로 표현한 학생은 완료형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미래완료진행으로 표현한 학생은 진행형으로 분류하여 점수 계산을 하였다. 점수는 시제별로 (맞은 문장 개수/총 문장 개수) * 100을 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였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점수를, SPSS 10.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2) 자유작문

자유작문으로는 시제와 관련된 표현을 이용해서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고자 어제 한 일(과거), 매일 하는 일(현재), 40대에 하고 싶은 일(미래)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주고 영어로 서술하게 하였다. 자유작문의 경우, 학생들의 작문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3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영역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하여 작문에서 학생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채점은, 먼저 연구자가 시제표현의 문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맞은 문장 개수/총 문장 개수로 하여 채점을 하고, 부산 시내 모 4년제 대학교에 교양영어 강사로 재직 중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캐나다인 남성 1명, 여성 1명의 화자들에게 의뢰하여 토폴(TOEFL)의 TWE(Test of Written English)기준에 따라 자유영작문의 채점을 하게 하였다. 그 후 상·하위집단의 시제 채점 점수와 원어민 채점 평균점수를 각각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제표현의 문법적인 부분을 채점한 것과 원어민 화자의 채점을 비교분석하여 시제상의 오류가 원어민 화자의 채점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Microsoft Word에 자유작문 영문을 불러온 뒤 [도구] 메뉴에서 맞춤법 및 문법 검사를 실시하고 Flesch식 문장 난이도와 Flesch-Kincaid식 학년 수준 점수를 표시하게 하였다. 문장 난이도 점수란 100점을 기준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서를 이해하기 쉬운 것이며, 표준 점수는 60 -70점 정도이다. 그리고 학년 수준 점수란 미국 학생들의 학년 수준으로 평가하는 점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8.0은 8학년 수준의 문장을 의미한다.

통계처리는 주로 전체 사례수에서 오류의 비율을 구하여 집단별로 비교하고, 자유작문 영문에 대한 원어민 점수, 시제·가정법점수와 상관관계를 SPSS 10.0의 Pearson 상관분석으로 조사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30명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통제작문 오류분석 결과와 상·하위 집단 간 점수 비교, 자유작문 오류분석 결과와 상·하위 집단 간 점수 비교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설문지 응답 결과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1. 통제작문 오류분석 결과와 상·하위 집단 간 점수 비교

1) 오류분석 결과

표 1. 정답수 및 오답수와 그 백분율

학생수	총 사례수	정답수	백분율	오답수	백분율
30	1,080	476	44.07%	604	55.92%

표 1을 보면 학생들의 통제작문 채점 결과 전체적으로 반에 못 미치는 약 44.07%의 정답율을 보였는데 시제와 가정법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에 대체로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시제에서 발생한 오류유형을 언어 간 전이와 언어 내 전이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총 오답의 수 604개 중 무응답을 보인 2개의 답을 제외하고 총 602개의 오류 중에서 언어 간 전이에 의한 것은 165개로 약 27.4%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언어 내 전이에 의한 것은 437개로 약 72.5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 시제별 평가내용과 대체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난 오류의 유형을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지면상 오류유형의 예는 한 두 개로 제한하여 표시한다.

표 2. 시제별 평가내용 및 오류유형

시제	문항 번호	평가내용	오류유형 (개수)	
			언어간	언어내
과거 시제	1	어제 오후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났다.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yesterday afternoon, the train had left.)	· (0)	had arrived (4)
	5	나는 대학 다닐 때, 일본어를 한 달 동안 배웠다. (When I was in college, I learned Japanese for 1 months.)	· (0)	have learned had learned (17)
	6	네가 호주에 간지 벌써 2년이 지났구나. (Two years has already passed since you went to Australia.)	go (6)	have gone to (2)
	15	나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볼펜을 썼다. (I wrote with a ball-point pen from 1969 to 1972.)	· (0)	had written have written (23)
	21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He said he would marry her.)	will marry (12)	married (6)
	22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e said she could understand everything.)	can under stand (5)	under stood (10)
	25	그가 왔을 때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	comes

		(When he came, I was watching TV.)	(0)	(11)
	31	내가 그를 보러 갔을 때 그는 이미 호텔을 떠났다.(When I went to see him, he had left the hotel.)	· (0)	go to see (11)
	계		21.49% (23)	78.5% (84)
현재 시제	2	그는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간다.(He goes to church with his family on Sundays.)	· (0)	go to (2)
	4	그는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다. (He owns two houses.)	is owing (1)	has owned own (5)
	계		12.5% (1)	87.5% (7)
미래 시제	7	내년에 누가 우리 담임선생님이 될지 말할 수 없다.(I can't tell who will be my homeroom teacher next year.)	will (1)	is (10)
	30	그가 오면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이다. (When he comes, we will meet him.)	· (0)	come will come (14)
	계		4% (1)	96% (24)
완료 형	1	어제 오후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났다.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yesterday afternoon, the train had left.)	left (8)	has left (9)
	31	내가 그를 보러 갔을 때 그는 이미 호텔을 떠났다. (When I went to see him, he had left the hotel.)	left (8)	has left (9)
	6	네가 호주에 간지 벌써 2년이 지났구나. (Two years has already passed since you went to Australia.)	passed (4)	had passed (14)
	14	나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같이 못가겠는데요. (I cannot come with you because I have lost my wallet.)	lost (15)	lose (3)
	23	너희는 사권지 얼마나 되었니? (How long have you gone on a date?)	· (0)	do go have went

			(16)
	3	그는 내일이면 2주일간 앓고 있는 중이 될 거야. (<i>He will have been ill for two weeks by tomorrow.</i>)	. (0) is will be (17)
	13	나는 이번 9월이면 5년째 이 회사에서 일해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i>I will have worked for this company for five years this September.</i>)	. (0) work (11)
			무응답(1)
	24	이 편지를 받아볼 때쯤, 나는 한국을 떠나 있을 것이다. (<i>I will have left Korea by the time you receive this letter.</i>)	will leave leave (22)
			무응답(1)
	계		25.73% (35) 74.26% (101)
			무응답(2)
진행형	11	그는 아침 식사 중이다. (<i>He is having breakfast.</i>)	. (0) has has had (9)
	16	3일 전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i>It has been raining for three days.</i>)	is raining (3) from 3days ago was raining (19)
	25	그가 왔을 때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i>When he came, I was watching TV.</i>)	watching (4) had watched (15)
	계		14% (7) 86% (43)
가정법	12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거기 갔을 텐데. (<i>If I had not been ill, I would have gone there.</i>)	weren't-would go (5) wasn't- will go (19)
	17	그는 마치 그가 그 광경을 보았던 것처럼 말한다. (<i>He speaks as if he had seen the sight.</i>)	saw (17) have seen (4)
	26	만약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그 집을 샀을 텐데. (<i>If I had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i>)	had -would buy (5) have-buy (19)
	29	부인하고 같이 오셨더라면 좋았을걸. (<i>I wish you had come with your</i>	came (5) come (19)

	wife.)		
32	이 영화를 안 봤더라면 후회했을 것이다. (<i>If I had not seen this movie, I would have regretted.</i>)	would regret-didn't see (5)	don't-will regret (20)
8	만약 내가 부자라면,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i>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i>)	am- can buy (3)	was- buy (11)
10	담배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어요. (<i>I wish you wouldn't smoke.</i>)	stop smoking had better not smoke (12)	should've stop smoking(4)
18	오늘이 토요일이라면 우리는 그 바닷가에 갈 수 있을 텐데. (<i>If today were Saturday, we could go to the beach.</i>)	is-can't go(4)	is-would go (14)
19	출발 할 시간이다. (<i>It's time that you started.</i>)	start will start (17)	should start (12)
27	수업이 끝날 때가 됐는데. (<i>It's time that the class was over.</i>)	is will be (17)	should be (12)
9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수영하러 갈 것이다. (<i>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go swimming.</i>)	· (0)	will be-go (11)
20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겠다. (<i>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out.</i>)	· (0)	will be raining-don't go (12)
28	만약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나는 교사가 될 것이다. (<i>If I were to be young again, I would be a teacher.</i>)	am- will be (8)	were was (21)
계		35.5% (98)	64.49% (178)
총계		27.4% (165)	72.58% (437)

(1) 과거시제

과거시제의 경우에는 과거의 기준시점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이전을 나타내는

과거완료와 달리 과거시제를 사용해야 할 것, 과거의 일정시점부터 일정시점까지를 나타낼 때는 과거완료나 현재완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시제를 써야 할 것, 주절이 과거일 경우 종속절은 과거시제와 일치해 줄 것(Azar, 1999) 등의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였다.

(2) 현재시제

현재시제는 교과서나 문법 참고서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류가 비교적 적었다.

(3) 미래시제

미래시제의 경우, will이라는 조동사를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과 같은 예외가 있음(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4) 완료형

완료형의 경우, 우리말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영어의 완료형은 표현의 형태가 우리말보다 복잡하며, 이러한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5) 진행형

진행형의 경우에는 현재완료진행의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와 과거진행과 과거완료의 혼동 오류가 많았다. 따라서 현재완료진행과 과거시제의 차이, 과거진행과 과거완료의 차이를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6) 가정법

가정법의 경우, 평균 점수(29.5)가 매우 낮으며 언어 간 전이 오류가 약 35.5%나 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에 대한 정확한 용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상·하위 집단 간 점수 비교

통제작문의 문장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맞힌 문장개수/총 문장개수) * 100으로 계산한 결과, 총점 평균 43.33점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각 시제유형과 가정법의 평균점수는 표 3과 같다.

표 3. 통제작문 각 유형별 평균점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총점)	진행 상	가정 법	총점
평균 (N=30)	52.5	86.7	58.3	41.7	41.1	42.2	41.6	44.4	29.5	43.3

통제작문의 점수를 SPSS 10.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집단간 통제작문 점수에 대한 T-검정

	피험자	인원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유의도
과거	상위	15	75.0	17.0	24.26	5.64	0.00*
	하위	15	30.0	25.8			
현재	상위	15	100.0	0.0	14.00	2.78	0.02*
	하위	15	73.3	37.2			
미래	상위	15	80.0	31.6	25.36	3.09	0.01*
	하위	15	36.7	44.2			
과거완료	상위	15	53.3	44.2	28.00	1.49	0.15
	하위	15	30.0	41.4			
현재완료	상위	15	60.0	28.7	28.00	3.90	0.00*
	하위	15	22.2	24.1			
미래완료	상위	15	62.2	37.0	28.00	3.25	0.00*
	하위	15	22.2	30.0			
완료(총점)	상위	15	58.8	19.4	28.00	4.67	0.00*
	하위	15	24.4	20.9			
진행형	상위	15	72.2	28.3	28.00	6.58	0.00*
	하위	15	16.7	16.4			
가정법	상위	15	35.9	19.0	28.00	1.91	0.07
	하위	15	23.1	17.7			
총점	상위	15	58.9	13.9	28.00	5.42	0.00*
	하위	15	27.8	17.4			

*p<0.05

표 4에서 살펴보면, 과거, 현재, 미래, 현재완료, 미래완료, 진행의 경우는 모두 집단 간 평균점수 비교를 해 본 결과,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과거완료와 가정법의 경우에는 모두 유의도 0.05 수준

에서 집단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과거완료의 경우, 학생들의 시제사용의 어려움 정도 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만큼 토익성적의 상·하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법의 평균 점수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제들의 평균점수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보아 가정법은 특히 한국어에 비해 표현방식이 다르고 그 형태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토익 성적이 높은 학생이든, 낮은 학생이든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

2. 자유작문 오류분석 결과와 상·하위 집단 간 점수 비교

1) 오류분석 결과

(1) 과거

①시제일치의 오류(50%)

- a. I did my best as enthusiastically as I *can*.
- b. It seemed that my 24 hours *are* too fast and short.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쓰이면 종속절의 시제는 항상 시제일치의 규칙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학생들이 영작을 할 때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시제일치의 오류였다. 그리고 과거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주절의 일이 시간의 부사절에서 일어난 일보다 앞서면 과거완료를 써야하지만 현재완료를 써서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②동사의 형태오류(15%)

- a. I ate and drank and *laugh*.
- b. We *wear*d a vinyl.

각각 laughed, had gone, wor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 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한 사례가 있었다.

③잘못된 시제-부사 활용(12.5%)

- a. I *got up* late these days.
- b. I *got up* late every morning.

과거시제와 현재형에서 쓰이는 부사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 오류가 나타났다.

④본동사의 생략(5%)

a. We **drinking** and **talking** about our future.

우리말에는 조동사, 본동사의 구별이 없이 쓰이므로 영작을 할 때 be동사를 쓰지 않고 단순히 -ing형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생겨난 오류이다.

과거시제의 주제에서 나타난 오류에는 주절이 과거형이면 시제일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타난 오류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동사의 형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오류, 부사와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 생겨난 오류, 본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조동사나 분사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려다 생긴 오류 등이 있었다.

(2) 현재

①불필요한 진행형의 사용(19%)

a. I **am sleeping** all day except exercise time.

b. Then I go to the library which **is belonging** university.

현재형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현재진행형을 씌으로써 오류를 보이고 있다.

②본동사의 생략(14.3%)

a. I always **concentration** computer for surfing internet.

b. I always **reading** a news paper in the morning.

본동사를 쓰지 않고 명사형이나 분사를 이용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③잘못된 부사 사용(9.5%)

a. I **have studied** just 2 months ago.

현재완료는 ago는 함께 쓸 수 없는데 함께 쓰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④잘못된 가정법 사용(9.5%)

a. If I **had** appointments, I **would go out**.

b. If I **didn't have**, I **stay** home all day.

문맥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단순히 가정하는 문장에서 가정법 과거를 써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시제의 주제에서 나타난 오류는 불필요하게 현재진행형을 쓴 오류, 본동사

를 생략하고 단어만으로 혹은 분사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려는 오류, 부사와 시제를 일치시키지 못한 오류, 가정법상의 오류 등이 있었다.

(3) 미래

①잘못된 조동사 사용(55.3%)

a. I **must have been** good at cooking.

b. I **would get married** to someone.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must have+과거분사의 동사 형태를 미래의 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잘못 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will을 쓰는 것이 적절한데, 이 때 may나 would와 같이 가정의 성격이 강한 조동사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②본동사의 생략(13.2%)

a. I **will very well speaking** English.

b. I hope my parents health **will good** .

조동사 뒤에 본동사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분사나 형용사만으로 의미를 표현하려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③동사 간의 시제 불일치(10.5%)

a. I wish this dream **is** not for any honor or power.

b. I hope I **would** not be exhausted as I do my best.

wish라는 동사는 현재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조건문과 유사하여 주로 과거 동사와 쓰이고, hope는 그 뒤에 따르는 절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건문이나 결과 절과 유사하므로 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와 쓰인다. 따라서 a의 is를 were로, b의 would를 will로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시간의 부사절에서의 will 사용(2.6%)

a. When I'll **be** in my forties, I'll be an ordinary middle aged woman.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는 규칙을 몰라서 위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미래시제의 주제에서 나타난 오류에는,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조동사를 잘못 사용한 오류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본동사를 생략하거나 시제일치를 하지 않은

오류, 시간의 부사절에서 will을 사용한 오류 등이 있었다.

2) 상·하위 집단 간 점수 비교

자유작문의 경우에는 25명의 학생들의 작문만을 대상으로 채점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위집단의 학생들 중 5명이 자유작문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며 아무 것도 쓰지 않은 채 제출을 하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유작문을 채점한 결과, 평균 약 90.92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 25명의 자유작문 총 문장개수 1404개에 대해 오답율을 계산한 결과, 7.69%의 낮은 오답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통제작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제와 가정법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자유작문의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가 판단할 때 활용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틀릴 것 같은 시제나 가정법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명의 영어 모국어 화자에게 TWE의 채점기준을 주고 1-6점까지를 부여하게 한 점수의 경우 평균은 각각 2.76과 2.92의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최고점은 5점, 최저점은 1점으로 6점 만점의 경우는 없었다. 이는 이 실험은 단순히 연구논문을 위한 것이었고 학점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주제 자체가 TWE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TWE 채점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제의 차이가 다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시제와 가정법 채점과 원어민 채점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집단간 자유작문 점수에 대한 T-검정

	피험자	인원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유의도
시제·가정법 점수	상위	15	95.4	3.3	10.857	3.41	0.01*
	하위	10	85.7	8.6			
원어민 채점 평균점수	상위	15	3.1	1.0	23	1.28	0.21
	하위	10	2.5	1.2			

*p<0.05

표 5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시제·가정법 점수에서는 유의도 0.05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원어민 채점의 평균점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토의 성적 상위집단 학생들이 영작문에서 시제와

가정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하위집단에 비해 더 나은 점수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작문의 전개와 유창성의 면에 있어서까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Flesch식 문장 난이도 점수와 Flesch-Kincaid식 학년수준 점수를 측정한 결과와 원어민 채점 평균, 시제·가정법 점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Flesch식 문장 난이도 점수, Flesch-Kincaid식 학년수준 점수, 원어민 채점 평균, 시제·가정법 점수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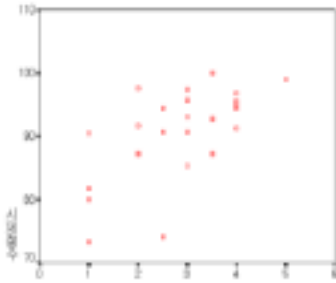
	시제·가정법점수	원어민채점평균	난이도	학년수준점수
시제·가정법점수	1.00	0.62**	-0.27	0.24
원어민채점평균		1.00	0.13	-0.16
난이도			1.00	-0.95**
학년수준점수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6을 보면, 원어민 채점평균점수와 시제·가정법 점수는 정적상관관계($r=0.616$)가 있고 또 난이도와 학년 수준점수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0.953$)가 있으며 난이도 점수와 학년수준 점수, 그리고 원어민 채점 평균점수와 시제·가정법 점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떠한 글이 읽기 쉽게만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글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시제나 가정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등의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원어민 채점평균점수와 시제·가정법 점수의 상관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유의도 0.01 수준에서 시제·가정법 점수와 원어민 채점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어민의 채점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지만 Pearson상관계수가 0.616으로써 시제·가정법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여부가 원어민의 채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측해볼 수가 있다.

실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 1과 같다.



원어민채점
그림 1. 시제·가정법 점수와 원어민 채점의 상관관계 그래프

3. 설문조사 분석

학습자가 평소 영어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감,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영어를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영어공부에 자신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학습자 대부분이 영어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어를 더 배우고 싶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소에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배우기 쉽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고, 반면 영어가 배우기 어렵다고 느끼는 학습자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에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학습자들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영어 쓰기 학습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쓰기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는 의견이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학교 영어교육에서 쓰기교육이 등한시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묻는 것에서, 기타의 의견 80%이상으로 많았고 기타 의견 대부분이 쓰기를 위해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쓰기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으로 특별히 활동을 하는 학습자들도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영어의 4기능 중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을 묻는 문항에서 영어의 기능 중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능 1위로 선택한 것이 말하기(53.%)였고 그

다음은 쓰기(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듣기(10%), 읽기(6.7%)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구두 질문한 결과, 쓰기도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만큼 쓰기를 따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게 될 취업을 위해서도 쓰기는 별로 필요가 없고 면접 등에 대비해 말하기가 더욱 필요하므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듣기나 읽기는 그동안 많이 학습해 왔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가 덜한 것 같다.

작문에 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실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제 작문과 자유작문 중 후자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휘나 문법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작문을 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문법, 어휘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문법이 어렵다는 것은 항상 느끼는 것이고, 말로 할 때는 문법을 생각하지 않고 해도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글로 쓰는 경우에는, 어렵더라도 문법에 맞게 써야 제대로 의사전달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의견과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영어 동사와 시제, 가정법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 학생들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동사의 영역이 시제(43.3%), 가정법(30%), 분사(13.3%), 조동사(10.0%), 수동태(3.3%) 순이었다. 학생들은 한국어와는 체계가 다른 영어의 시제 체계와 가정법을 활용하는데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시제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시제는 과거완료진행(23.3%), 미래완료진행, 과거완료, 현재완료(16.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과거, 미래의 단순시제보다는 한국어와 달리 체계가 복잡한 완료나 진행형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거시제와 현재완료시제, 과거시제와 과거완료시제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시제 교육에서 특히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의 시제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70% 이상의 학습자가 가정법에 대해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정법 역시 형태와 의미하는 바가 달라서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동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를 고르게 하였는데 5개 모두 맞힌 경우는 13.3%, 4개는 10%, 3개는 36.6%, 2개는 23.3%, 1개는 16.6%로 나타났다. 70%이상의 학습자가 3개 이하의 답을 맞힌 것으로 보아 영어에서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다.

작문을 할 때 오류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을 분석하면 학생들은 작문을 할 때, 누군가가 오류를 지적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평소 영작문의 오류는 누가 고쳐주느냐”라는 질문에 기타의 의견이 많았는데, 쓰기 학습을 따로 하지 않는 학습자들과 학교에서 교수나 강사의 피드백 혹은 책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스스로 학습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원어민이나 친구, 혹은 학원 강사에게서 오류 수정을 받고 있는 학습자가 10% 대로 나타났다.

4. 논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자가 조사한 선행 연구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통제작문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는데, 박병제(1995)의 연구에서는 무응답으로 반응한 경우가 전체의 26.5%에 이르렀고 정승영·김숙희(1998)의 연구에서도 전체 무응답이 11.8%였으며 시제 문항의 무응답도 6.7%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1080개 중 2개로서 0.18%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에 비해 오류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편이었다.

둘째, 조정례(1988)는 오류점수를 토대로 집단을 상·하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분류를 통해 학습 수준에 따른 오류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두 그룹 모두 언어 전이보다는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가 많았는데, 특히 상위그룹에서 규칙 확대에 의한 오류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Taylor(1975)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상·하위집단 간 T-검정을 통해 두 집단 모두가 어려워하는 영역이 과거완료와 가정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최현욱(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시제·상·서법동사 운용상의 오류가 9.7%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통제작문의 55.92%에 비하면 매우 낮으나 자유영작의 결과와는 비슷한 낮은 오류율(7.69%)을 보이고 있다. 이효복(1983)의 연구에서도 자유작문에서는 가정법과 같은 사용이 어려운 문법은 활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자유작문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가정법을 활용하지 않아 오류를 볼 수 없었던 것과 같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유영작을 실시할 경우 활용하기 어려운 문법에 관해 회피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김대근(1991)의 연구에서는 완료와 진행상의 오류가 단순시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일선(1988)의 연구에서도 단순형보다는 완료형의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단순시제의 정답률이 50-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완료 41.6%, 진행 44.4%의 정답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답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선(1988)은 동사 오류의 하나로 서법을 다루고 있는데 시제에서 나타난 모국어 전이 오류율이 8%인 것에 비해, 서법에서 나타난 모국어 전이 오류율은 37%나 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가정법의 언어 간 전이 오류율이 35.5%나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선(1988)의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동사 항목에 대해 가정법, 태, 시제, 분사 순으로 나타났는데, 다. 본 연구에서는 시제, 가정법, 분사, 조동사, 수동태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시제와 가정법을 특히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덧붙여, 학생들의 정의적인 측면도 조사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통제작문(36.7%)보다 자유작문(60.0%)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제 영작 점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통제작문의 평균 점수가 43.33점이고 시제와 가정법의 오답만을 기준으로 한 자유작문 평균 점수는 90.92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나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실험대상이 대학생인 만큼 자기가 자신이 있는 어휘나 문법만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자유작문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완료나 완료진행과 같은 시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단순시제의 점수 평균은 약 65.83점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완료형과 진행형의 점수 평균은 약 42.3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하위 집단 간 T-검정에서도 과거완료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실력에 관계없이 모두 어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거와 현재완료, 과거와 과거완료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각각 학생들의 약 60.0%, 56.7%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실제 영작에서도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를 혼동한 오답이 많았다.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에 해당하는 13개의 문항에서 약 21.28%의 오답이 과거와 현재완료, 과거완료를 혼동하여 나타난 것이었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약 76.6%가 가정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제작문 점수의 결과에서 가정법의 평균 점수는 29.48점으로 시제 점수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T-검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 대부분이 가정법에 대한 규칙의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를 고르는 문항에서 약 13.33%의 학생들만이 5개의 정답을 모두 찾았다. 통제작문에서 진행형의 평균 점수는 약 44.44점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행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위권과 하위권에서 각각 3명의 학생의 설문지를 선택하여 개인의 영작 점수와 비교해보면, 먼저 상위권에서는 S13과 S14의 경우 진행형에서 100점을 얻었으며 설문에서는 4개의 정답을 선택하였다. 이는 비교적 진행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S12의 경우 5개의 정답은 모두 선택하였지만 실제 영작점수는 약 66.66점이었다. 이는 평소에 문법을 학습하면서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를 암기하여 알고는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위권에서는 S28과 S29 모두 진행형 점수가 0점이며 설문에서도 정답을 하나도 맞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행형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활용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21의 경우 5개의 정답을 모두 선택하였으나 진행형의 점수는 약 33.3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1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암기를 통해 진행형으로 쓰지 못하는 동사를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통제작문과 자유작문을 실시하여 대학생들의 영작문에서 나타난 시제와 가정법상에서의 오류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와 영어작문에서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문조사로 파악하여 작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연관시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통제작문에서는 약 44.07%의 정답율을 보였고 이중에서 언어 내 전이가 72.59%로 언어 간 전이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TOEIC성적별로 구분한 상·하위 집단의 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제작문 시제 상 오류의 경우는 과거완료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도 0.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가정법 상 오류의 경우에는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가정법의 경우에는 수준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작문을 통해 나타난 정답율은 평균 90.92%로 통제작문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자유롭게 하는 작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휘나 문법은 회피하는 경향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작문의 시제·가정법 점수와 원어민 채점 평균점수를 이용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토익 성적 상위집단 학생들이 영작문에서 시제와 가정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하위집단에 비해 더 나은 수행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작문의 전개와 유창성의 면에 있어서까지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어민 채점점수, 시제·가정법의 오류 채점점수, Flesch 식 문장 난이도 점수, Flesch-Kincaid식 학년수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글이 읽기 쉽게만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글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시제나 가정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의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영어에 대한 흥미도는 높은 반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였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기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말하기, 쓰기 순으로 나타났다고 선호하는 작문 방식은 자유작문이었다. 특히 어려워하는 동사의 영역은 시제와 가정법이었고, 또한 시제 영역에서는 과거완료진행, 과거완료, 현재완료, 미래완료진행 등으로써 진행형과 완료형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완료, 현재완료, 과거 간의 구별에 어려움을 보이며, 가정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더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일선의 중·고등 영어 교육 과정에서도 시제와 가정법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김대곤. (1991). *한국 학생들의 영어시제 사용에 나타난 오류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일선. (1988). *영어 동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연구: 시제, 서법, 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제. (1995).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영작문 지도법.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영어어문교육*, 1, 159-187.
- 이효복. (1983). *오류분석: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작문과 문법 시험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영, 김숙희. (1998). 영어 쓰기 오류의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8(1), 169-184.
- 정혜선. (2005). *대학생의 영작문에 나타난 시제와 가정법 사용 오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례. (1988). *고교생의 영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욱. (1992). *영어교육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Azar, B. S. (1999).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3rd ed.). New York : Longman.
- Bachman, L. F. (1991). What Does Language Testing Have to Offer? *TESOL Quarterly*, 25, 671-704.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ew York : Longman.
- Burt, M. (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9(9), 53-63.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2nd ed.). Boston : Heinle & Heinle.
- Corder, S. P. (1971).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5, 161-170.
- Corder, S. P.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s, C. (1957).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Nemser, W. (1971). Approximative System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IRAL*, 9(2), 115-123.

Richards, J. C. (1974). *Error Analysis.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 Longman, 36-50.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 8(2), 216-217.

Taylor, B. (1975). The Use of Overgeneralization and Transfer Learning Strategies by Elementary and intermediate Students of ESL. *Language Learning*, 25, 73-107.